朝鮮日報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漢健
編輯局長 文東彪
發行所 서울市太平路一街 朝鮮日報社
電話本社 編輯局 三三八五 營業局 三三八四
月定購讀料 貳百圓

治安局獨立案은否決
內務部所屬決定
政府組織法(七章49條)討議進行

政府組織法起草委員會는 專門委員과더부러 九日午後二時부터 同法案을繼續討議하였는데 지난八日午後會議에서는 專門委員側의草案인五處十部制를 中心으로討議한結果五處中建設處를빼기로決定하고 建設處所管의 土木에關한事務를內務部에包含하기로決定하였으며 問題의治安部獨立設置에對해서는 韓民系議員과無所屬議員間에熾烈한論爭이있었으나 結局原案대로 內務部에從屬시키기로落着되었다한다그리고問題中이던商工、交通、社會、三部도原案대로 無難히決되었는데 治安部를獨立部로 設置할것을 猛烈히主張하는 韓民系議員六、七人은起草委員會討議에서 意思를貫하지못하자 專門委員一人과함께閉會後 午後六時頃 李議長을訪問하고 議長의意見을打診하였으나 李議長亦是治安部의 設置反對가 一般人民의意思라면 할수없는것이아니냐고 反問하는態度를 表示하였음으로하는수없이 無爲廻歸하였다한다 그런데 그동안討議된政府組織案大綱에 依하야 專門委員會에서 起草한法案의內容은 全文七章四十九條로서 第一章國務院과國務總理 第二章行政各部 第三章國務院(國務總理)所屬機關 第四章部處等의 所屬機關 第五章考試委員會 第六章監察委員會 第七章補則으로되여있는데 第四章部處等의所屬機關으로는 行政官局課係를두기로되어있고 이의設置及事務範圍는 大統領令으로할수있게되어있다 그리고 監察委員會와考試委員會는 直接大統領直屬으로서 國會議員과法官을除外한公務員의 懲戒에關한事務를 掌理하는것으로되어있다 또한行政各部에는 部長外에次長一人을두기로되어있는데 各部의事務範圍는 大略다음과같다

▲內務‖公安、地方行政、議員選擧土木消防及地方自治監督
▲外務‖外交、外國과의各種條約協定과 在外僑民에關한事務
▲財務‖財務에關한總活事務
▲農務‖農林、水産、畜産食糧、農地改革
▲商工‖商務、鑛業、工業電氣、化學、度量衡、貿易
▲文敎‖文敎、學術、一般
▲社會‖勞働、保健厚生各般
▲法務‖檢察、刑政
▲國防‖陸、海、空軍政
▲交通‖鐵道、海運、航空關係運輸、郵便、電信電話

二讀會通過된憲法案(完)

第八章 地方自治

第九十五條 地方自治團體는 財産을管理하며 法令의範圍內에서 自治에關한 行政事務와 法令에依하여委任된行政事務를處理한다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範圍內에서 自治規程을制定할수있다

第九十六條 地方自治團體의組織과 運營에關한事項은 法律로서定한다 地方自治團體에는 各各議會를둔다 地方議會의組織 權限과議員의 選擧는 法律로써定한다

第九章 憲法改正

第九十七條 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또는國會의 在籍議員三分之一以上의贊成으로써한다 憲法改正의提議는 大統領이 이를公布하여야한다 公告期間은三十日 以上으로한다 憲法改正의議決은 國會에서在籍議員三分之二以上의 贊成으로써한다 憲法改正이 議決된때에는 大統領은 卽時公布한다

第十章 附則

第九十八條 이憲法은 이憲法을制定한 國會의議長이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法律의制定이 없이는 實施할수없는 規定은 그法律이施行되는 때부터施行된다

第九十九條 現行法令은 이憲法에 抵觸되지아니하는 限 效力을가진다

第百條 이憲法을制定한 國會는 檀紀四二七八年八月十五日以前의 惡質的인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特別法을制定할수있다

第百一條 이憲法을制定한國會는 이憲法에依한國會로서의 權限을行하며 그議員의任期는 國會開會日로부터二年으로한다

第百二條 이憲法施行時에在職하고있는 公務員은 이憲法에依하여 選擧또는任命된者가 그職務를繼承할때까지 繼續하여職務를行한다

追加修正

▲第七條 第二項外國人의 法的地位는 國際法과 國際條約과國際慣習의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第十八條 勤勞者의團結、團體交涉과團體行動의自由는 法律의範圍內에서保障된다 營利를目的으로하는 私企業에있어서는 勤勞者는 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 利益의分配에均霑할權利가있다

▲第四十一條 國會는國際組織에關한條約、相互援助에關한條約、講和條約、通商條約、國家또는國民에게 財政的負擔을 지우는條約、立法事項에關한條約의批准과宣戰布告에對하여同意한다

"統協"案은拋棄하고 統一獨立促進會로
民聯韓獨連席會議서決議

南北統一國民運動展開의機構設置를 爲한 韓獨 民聯의連席會議는 金九 金奎植兩氏의創意下에 其間十數次에걸처서 開催된結果 統一機構로서 旣成組織인「統協」을 擴大强化할것으로 決議하였다함은 旣報한바인데 同「統協」大會召集을 圍요코 領導權問題에關한 柳林氏의 固執으로 「統協」大會召集은 드되어流産되고 이에再次新機構設置를講究하게되었다 卽 지난八日「統協」大會召集에關한 事前打合을 目的하여 열린民聯 韓獨의 連席會議에서는 柳林氏의 態度變更으로因하야 「統協」大會召集을 中止하고 新統一機構로서 「統一獨立促進會」를 結成할것을決議하였다 發起籌備委員으로서는 金明濬、呂運弘、嚴恒燮、李斗山、趙素昂、裵成龍諸氏가 選出되었는데 臨時事務所는民聯本部에 設置키로되었다 그리고 昨九日에는午前十時부터 民聯本部에서 委員全員參集下에「統一獨立促進會」의 發起에關한協議를하였는데 不遠間에同發起會는 召集될것이라하며 六十餘政黨社會團體가 이에 招請될것이라한다

社說
憲法案과政府組織法

憲法案은 二讀會를 通過하야 남은것은 文句修正뿐으로 그骨格은 完成된터이다 民主憲法에서가장問題의重心이 되는바는 統治機關의土臺를 國家主權의 發源體인 國民에게 集結식히어 恒時 國民의 意思가 統治機關에 直接 間接으로反映되여야 할것에있는것이다 그러나 이번 憲法은大統領責任制와 內閣責任制와를折衷하얏다고하면서도 大統領의權限이 지나치게 强大해젓다는것과 또 行政府對立法府와의 調節 또 行政府內의 大統領과 國務院間의 統一性이 缺如하다는것等 이미 本欄에서 指摘한바도 있거니와 다시 憲法案에 對하야 우리가冷靜히 再考하여야할것은 國會에서 選擧된大統領이 國會에對해서 國務遂行上責任을 가지지않는다면 그選擧는 國民의 直接選擧에 依하여야 마땅할것이다 그러고國會制度에對해서는 兩院制의不可를論하는者 거이없는듯하면서도 現政局이나 一般情勢로보아 于先單院制로하는것이좋으리라는뜻이 論하는것이普通인것같다 國務의圓滿 또愼重을期하기爲하야 兩院制는반듯이必要한것이다 그러고兩院制를採擇한다고해도 政府樹立後 各地方 各級政廳이 完備된後 그러고도相當한時日을 要할것이어서 當面한國務處理는 當分間單院制로 나가지아니치못할것이 實情이다、兩院制로하야 參議院을 둔다고해서 決코 保守勢力을 擁立하는것이 아니고 重要國事處理를 再考하는 機會를 가지게하는것뿐이다 大戰後 佛蘭西가 單院制로 했다가 다시 兩院制로 고친것도 큰參考가될것이다 國內、國際關係의 問題가多端하고 또 重大한바많은 國家의 環境을 생각할때 學識、經驗、德望높은者 또職能代表等을 網羅한 參議院의 設置는 絕對 緊要한것일것이다。

二

다음으로 二讀會에서가장時間을要한論題로勤勞者로하여금 利益配當의均霑權을 가지게한다는問題도 實로愼重을 要하는바이다 現世의 世界情勢로말해도 經濟的弱者를 어떠케保護하며 그生活權을 어떠케 保障하느냐는 어떤國家에서도 크게努力하는바이다 勿論우리朝鮮에서도 獨占資力의 橫暴를制禦하는一方勤勞者를 積極保護하고 또그能力을 最大限度로發揮할수있을만큼 經濟的社會的條件을 賦與하여야할것은 憲法에서도 主要課題가되지 않을수없다 그러나 産業의發展이란것은 곳 國力의富强을 意味하는것이어서 産業振興策을 갖이 考慮하여야할것은 勤勞者의 企業體에對한 發言權의確立과 充分한調節을 前提하여야할것이다 일즉이 露西亞가 企業의全般的 國有化에서 新經濟政策을 採用치않을수 없었든것은 一般的企業熱의助長이 國家的으로 産業을 振興식히는데 必要했다는것을 意味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또로든 資源의開發 産業의振興을 爲하야는 資本의獨占的橫暴를 不許하는限에서 一般의 企業熱을 助長할 餘地는 남겨두어야할것이다 二讀會 最終日에 『勤勞者는 利益配當의均霑權을 가진다』라고 添加했든 項目을다시『營利를 目的으로하는 私企業에있어서 法律의定하는바에 依하야 利益의分配에均霑할權利가있다』라고 翻案可決되여 法律에依해서 利益分配에 參與케한다는 그程度로企業主의立場을考慮한點이뵈인다 우리는決코 企業主를擁護하기爲해서가아니다 當場疑問되는것은 『利益』이란 무엇이냐 하는것부터解釋이 分明하여야할것이니 損害의境遇는 어떠케되며 또層差만흔多樣의企業體에 그適用은 圓滿할것인가 勤勞者의 保護는 勞動法其他社會立法에서 얼마던지 强化할수있을것이다 그런데憲法에서 規定한이러한 條文이 果然어떠政府의손으로어떻게 法律化할런지는모르나 立法運營如何로는勤勞者의 權利가어떠한過에制約될바는 없겠는가 이는法律的條文에서 보다도經濟學上 다시檢討되어야할 難問題이라할것이다。

三

憲法案審議는 大略完了가되어 國會는 政府組織法起草에 着手하야 十部五處案을中心으로討議하고있다 먼저우리의注目을끄는것은 交通部를무어運輸、遞信을 併合한다는것이다 海陸産業과文化의急速한發展을 期하고저할때 兩者는 그彪大한機構와 또現員을 非常히많이 包擁하고 있는點等에서도 獨立的으로 積極的活動을하여야할것으로본다 交通、通信은 國家의動脈이요 中樞神經이거니와 우리가解放後그破壞로因한苦痛을 얼마나바덧는가 이제復興에서 다시積極建設을 必要할 이때、交通、通信行政을 單一化할것이다、또 卓上空論이라하다는것은 또 名稱如何는 [illegible] 지몰로나、國土의八割을山林地帶로하고있는 이땅에서 또赤地化한 山野의現狀에서 林野行政에主力하여야한다는 前提에서 農務는 農林部라고하고 山林局에主力할 氣魄을보여야한다、그러고、起草委員會에서 警察을 獨立한部로 두자는說이 있다고하나 이는言語道斷이다 一國의警察이 一般行政에서 超然獨立하면어떠케되는가더구나國防部가있고그와對峙한 警察의部를둔다면남보기에도 무엇이되는가 그러고地方行政長官은 무슨힘을가지고 行政全般을調和遂行 하라는것인가 再考의餘地가없는것이다。

伯林封鎖解除條件下 四國會談再開
西歐側對蘇通牒에提案?

【런던九日發UP朝通】消息通談에依하면 美、英、佛은 萬一쏘聯이 伯林封鎖를 解除하는데에는 伯林의 全般問題에關하여 쏘聯과會談을 再開할것을 提議하였다고 한다 一便 英國外務省代辯人의 發表에 依하면 西獨으로부터 쏘聯의 賠償物輸送은 一切 停止되였다고 한다 그런데 今般伯林全般事態에 關한會談再開申請은 지난六日蘇聯側에傳達된伯林封鎖解除를要求하는 英美佛의同文通牒中에 包含되여있다고한다 同提案은決定的인것으로써 그밖에同通牒은 아래와같은點을再次指摘하고있다고한다

一、西歐諸國은 伯林占領의合法的權利를 갖이고 있다는것

二、西歐諸國은 쏘聯의威脅으로는 伯林에서撤退하지않을決意한것

三、伯林은 國際地帶이며 蘇聯占領地域의一部가아니라는것

그리고西歐의 提案에依하야伯林封鎖解除와 同時에開催될 四個國會談은 四個國外相이 아니고各占領軍司令官에依하야 進行될것으로보인다

棉花를供給
美陸軍對朝鮮基金活用計劃

【워싱톤九日發AP合同】지난七日陸軍當局에서는 國會에서 承認된占領地域에所用되는 棉花其他의纖維品購買에充當한 一億五千萬弗의 運轉基金을實地로活用코저 目下計劃中에있다고 말하였다 그러고 同代辯人談에依하면 日本及朝鮮의 棉花工場에所用될棉花의購入을 開始하기까지에는 若干의時日이걸릴것이며 同基金管理機關은陸軍長官監督下에 事業을進行시키리라한다

西歐側大幅節電 失業者氾濫豫想

【베르린九日發UP朝通】過去十八間의 쏘聯의伯林飢餓封鎖로因하여 西歐諸國은九日正夜를期하여 石炭節約을爲한 大幅節電을 實施하게되였다 그結果 大量의失業者들 내이것으로豫想된다 한편 伯林占領軍司令官談에 依하면 本節電令으로因하여全市勞動者의約半인 七十五萬名의勞働者들은 職을 當하게되리라고한다

蘇聯軍政長官 重大聲明豫定

【베르린九日發UP朝通】蘇聯軍報道部는 八日子正까지蘇聯軍政長官「소콜로프스키ー」元帥의 西歐諸國軍政長官에對한 書翰原文을發表하겠다고 聲明하였다

佛財務省職員罷業

【파리九日發AP合同】佛國財務省職員들은 賃金等級變更을要求하고 八日罷業을斷行하였다 그러고同罷業에는 稅關職員收稅員煙草專賣局勞働者中央外貨交換所職員들이參加하였다

日本再建反對
中比濠印의輿論沸騰

【뉴ー욕九日發UP朝通】「유나이테드・스테이트・뉴ー스・엔드・월드・리포ー트」誌七月號는 美國의 對日政策에關하여다음과같이 論評하였다 「日本은亞細亞의工場으로 再建하려는 美國政策은特히日本人들의 殘惡行爲를잊지못하며 또한强力한工業國으로 蘇生한日本이將次무엇을할지 疑心하고있는 比律賓사람들가운데 物議를이르키고있다 이와같은 輿論은比律賓뿐만아니다 中國、濠洲、印度等諸國內에도 充滿하고있으며 諸國國民들은 이같이 美國의日本工業復興政策에 憤慨하는同時에 微弱한自國의工業이 또다시 새로운競爭에 直面하게될것을 두려워하고있다 그리고美國政策背後에는 蘇聯에對한 恐怖가潛在하는것이라고보고있으며 「워싱톤」當局도 이要素를否認하지못하고있다 그러나美國은또한 開戰以來日本에 埋沒된敗償弗의 財産을찾기를願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日本이經濟的으로自立한然後에야 美國의援助를除去할수있다는 見地에서日本은 再建되어야한다는것이다」

羅國도對유經濟斷交乎

【부카레스트九日發UP朝通】「루ー마니아」의 最大石油會社中의하나는 先週에「유ー고스라비아」行의 石油輸送을 停止시켰으며 「다뉴ー브」河運船舶은 運休되었다

猶아戰鬪再開
國聯委는撤收를準備

【로ー도스九日發UP朝通】『베르나돗테』伯은 『아랍』側이 『팔레스타인』停戰延長에關한 UN의提案을 拒絕하였다고 發表하였다 이로써九日GMT六時停戰滿了를 契機로 聖地에는 또다시戰鬪가開始될豫定이다 『텔아비브』發報에依하면 埃及軍의攻擊으로因하여 戰鬪는事實上 이미開始되였다고한다 一便『하이파』의 UN停戰委員團은 停戰提案이 拒絕됨으로 因하여 그들의事業을 끝마치고 『하이파』港에 碇泊中인美國驅逐艦으로 出發準備를하고있다고한다 『베』伯은 記者團에게 對하여 停戰延長工作이 失敗함으로서 打擊을받는것은 余가아니고 그것은 戰爭雙方일것이다 이는猶아戰爭이라는것은 決코收支가맞는것이아니기 때문이다라고말하였다

馬來戰鬪熾烈化
英空軍도出動

【싱가폴九日發AP合同】英國 東南亞總高等辯務官「멜콤、맥도날드」氏는 馬來에서의 英國陸海空軍對「께리라」戰狀況에 關하여 七日다음같이發表하였다 (一)英國은 馬來에서 權力을掌握할랴는 共産主義者들의 企圖를粉碎하기爲하야 陸海空軍部隊를 動員하였다(二)何時에『싱가폴』에 波及될지모르는 馬來聯邦에서와『페르리스』의暴動은 暴力革命으로 政權을强奪하려는 馬來共産主義者들의 意識的인計劃의一部이다 英空軍機는 馬來全土及東

人事往來

▲洪相國氏(美公報院連絡官)新任人事次來社
▲金광燮氏(中央聯公報局長)人事次來社

八面鋒

學校門은 아직도좁아서 갈곳마다 登落의喜悲가必至▲원체 有資格、無資格의 考査가 아니라座席의 不足때문에 하는제비라、落榜의 悲哀도 더욱深刻▲그런지라 悲哀는落榜된 그個人의悲哀만이 아니라 實로國家的根本問題▲義務敎育을實施하재도 學級이 不足이요 校舍가問題라니 中等以上의 좁은門이 넓버질날은 아직도까마득▲그래서 來年도、來後年도이 悲哀가繼續될것이요 언제나解消될지도까마득하니 이것이더욱 답답한일이다。▲그는그렇다하고 幸運의 제비를뽑은 合格者들을爲하여는慶賀할일인데 그들도 기쁨만이있는것은아니다。▲남못하는 入學을 하였으니 學校를爲하여 寄附金負擔은 當然할까는모르나 二萬圓 五萬圓이라면 가벼운負擔이 아닌것▲그도 넉넉한 사람들이야 또모르지만 合格은 기쁘나 寄附는 不堪當의處地로서는 幸運兒들에게도 喜悲는交至 ▲여기敎育朝鮮의危機가있다

眼鏡界의權威
愛眼堂
서울忠武路一街

漢陽工科大學 學生募集
一、募集人員
1 電氣工學科 機械工學科 各五十名
夜間部
土木、建築、電氣機械各工學科 若干名
二、出願期日 自七月五日至七月十八日下午五時
三、應募資格
(가)六年制各種中學校卒業者
(나)舊制大學豫科及專門部一年修了者
(다)大學資格檢定試驗合格者
(라)各種大學舊專門部二年修了者
四、試驗科目 國語、英語、數學、社會生活(公民、歷史、地理)
五、試驗期日 自七月十九日至七月二十一日
六、詳細는本大學敎務課에問議할것
서울市城東區新堂洞一五一番地
漢陽工科大學
電(5)七三六、一七八三、三一五七番

敵産關係政策並手續便攬
中央管財處次長 前延專敎授 鄭光鉉先生編著
一、本書의特色
一般에未普及된 敵産關係政策과 手續의公表 旣發表部分中誤譯의訂正 其他敵産關係重要新資料와 重要部分에 註釋을加하야 分類編輯한것이다
二、本書의重要內容
一九四八年五月末日現在로 (1)敵産關係政策(前例全部)(2)管財令全部(3)管財手續要項全部(4)敵産에關한賃貸借、運營、融資、拂下(拂下評價內規包含)關係(5)各種敵産契約書(6)訴訟事件簡易處理指示等一七〇餘項目
以上과같이 本書는敵産에關한 百科全書에該當한다고 말할수있는것으로 各官公署는 勿論管財職員、辯護士、司法書士、敵産管理人及敵産關係者의 必攜必讀의寶物이니 一日이라도速히 읽고 合法的으로敵産을 解決지우시라
優良紙 菊版 二三〇頁 定價二五〇圓 送料二〇圓
發行所 株式會社 東光堂
서울市鍾路區寬洞一二三番地 振替 京城一六一貳一番

現代文化讀本
國立서울大學 金自煥先生編(高級用一冊)
執筆者氏名(無順)
國立서울大學校 李丙燾先生
國立서울大學校 李秉岐先生
國立서울大學校 方鍾鉉先生
國立서울大學校 洪起文先生
輿論局政治敎育 韓稚振先生
國立서울大學校 金貞煥先生
科學博物館 石宙明先生
新太平洋社主幹 徐範錫先生
文敎部編修課 盧道陽先生
各有名書店에서販賣中
서울市中區仁峴洞一街三七
文榮堂
값 350圓

中央電影第二廠作品
抗日戰八年
(原名忠義之家)
中國抗日戰士 朝鮮革命鬪士 共同作品
特別奉仕料金二五圓(稅別)
10日부터
朝鮮劇場

財團法人 東洋工業初級中學校
一、土木科、機械科、第一學年 各五〇名式
二、土木科、機械科、二、三學年補缺生若干名
一、出願期日 七月十四日限
一、試驗期日 七月十五日부터
서울市永登浦區本洞(電話(4)二一八八九番)
(電車驛終點下車三分)(○車驛에서十分)

春繭28萬貫增加豫想
購入資金도12億으로追加融資

금년춘견(春繭)의소립(掃立)성적은 청우와뽕나무관계가 순조로워예상이상의성적을 거두고있는데 이에대처하야 조선금융단에서는 지난번 춘견구입자금으로서 융자키로결정한 六억七천七백만원에뒤이어 이지음다시四억九천二백만원을 추가융자키로결정하였다 금번춘견의구입 예상량은 최초에는三十九만八천七백二十四관이였었는데 그후각지의실정을조사한결과 제一차구입예상량보담 二十八만九천七백二十八관이나 증가한것이판명되어 이와같이주가융자케 된것이라고한다

市廳에60萬圓 不正入札事件

서울시청에六十만원짜리부정입찰사건으로 말썽!시청공익사업국(公益事業局)에서는 지난五월상순경 수도지하관으로사용할철관(鐵管)이시내왕십리와 용산방면에산재하여있어 이것을수집운반하였다는데 이운반에있어서 동공익사업국장지중세(池中世)씨는 운반비약六十만원가량되는사업을 一개업자에단독적으로주었다고한다 이것은시청 예규(例規)에위반한것으로 시당국에서는 전기지국장이운반업자와결탁하고향응또는기타이해관계가있지않나하야 엄중조사중이라고한다 이사건에대하야 시청측의 의견을들으면 다음과같다

업자에주는 청부업은다소를막론하고재무국 회계과에서하는 공개입찰로서 맞춰야하는데 이번사건은 지씨가 이규정을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출입상인도아닌一개업자에 六千만원에 달하는 거액의청부를준것은행정규정의 위반하는것이다 라고한다

阿片中毒者 大邱에二萬

해방과함께 아편중독자의수가나날이 많어지고있어이에대한 당국의각별한 조치가요청되고있는 이지음남대구 경찰서에서는지난二일부터 형사대를동원하야 중독자의 소굴적발과마약밀매자에 대한 대규모의 검거망을 펴고있었든바 지난 五일 드디어 아편상인七명을 일망타진하여 방금 취조중이라하는데 앞으로도 검거망은 확대될것으로보인다 남대구서측에서 말하는바에의하면 대구에있어서 중독자는 무려二만명 아편거래금액 매달三천만원이라는 놀라운수자가 집작된다고한다(大邱朝通)

濟州道에第二次應援隊派遣
鐵道管區廳서

제주도소요사건 진압차로 철도관구경찰청에서는 지난번 제一차응원대를파견하였는데이번다시제二응원대三백명을 파견하게되어 그중백명은 十일오전九시 서울역발『서부해방자』호로 출발하고 남어지二백명은 十九일출발키로되있다 이제二차응원대가 제주도에도착하면 제一차응원대는 귀임할터이다

배沈沒만四隻
群山海上被害莫大
颱風通過로

황해로부터 내습한태풍은지난七일하오두시부터 시속二十마일의 속도로약두시간동안 군산일대를휩쓸고지나갔는데 이로해서육상의피해는 심한바있었다한다 즉八일군산항만청(群山港灣廳)에 들어온보고에의하면 장항(長項)부두에서 배가침몰된것이 四척(그중일척은 밀을실은배)(백톤급) 파손 또는 표류二十척을 내였다하며 그손해는 수천만원에달한다고한다(群山合同)

木浦第二堤防崩壞로 二百餘戶浸水

지난七일을 전후하야남조선에습래한 태풍과폭풍우의피해는 통신기관의불비로아직 그전모가판명되지않코있는데 운수부에들어온보고에 의하면지난六일목포(木浦)제二제방은 폭풍우에 붕괴되어목포시내의가옥二백호가 침수하였다고한다

이二백호중에는 운수부관사五十호가 포함되어있는데 급보에접한 운수부에서는 九일오전九시부원수명이 구제물자와함께목포로 급행하였다

暴雨로大邱地方水害
家屋農地浸水流失等

지난四일부터 쏘다지기시작한 폭우로말미아마경상북도도내 여러군에서상당한피해를내이고있다 특히영천(永川)지방에는피해가 심하다하며 현재까지제五관구경찰청에들어온 피해보고에의하면 동군내는평균八十九미리 우량으로임부(臨阜) 자양(紫陽) 청경(淸鏡) 금호(琴湖) 동지에 침수가옥十二호 유실전답二정보 유실된다리 六개소 특히영천포항간교통은 청경천다리가 떠나려가두절되였다 예천(醴泉)군은 八십八미리 우량으로 용문면 대재동(龍門面大載洞)에 익사자一명을내었다 (大邱朝通)

文化團體總聯서 文化政策을建議

全國文化團體總聯盟(文總)에서는 新生祖國을위하여 强力한文化行政機構設置를要請하여 이미數次建議書와 멧세-지를國會에보내왓거니와 지난八日다시그具體的 方策을作成하여 政府組織法起草委員會에建議하였다는바 그內容은 다음과같다

(略) 憲法制定에있어서 文化를尊重하고 그實現을保約하야 憲法原文第二章第十四條에 「모든國民은 學問과 藝術의自由를가진다 著作者 發明家 藝術家의權利는 法律로써保護한다」한과가튼憲法의 條項은 再生하는國家의憲法制定에 한英斷이라아니할수없다

그렇나 이것이法律化한以上 그實踐에있어서政府로서는滿乎한 文化政策이樹立되여야하고 이政策을遂行하라면 文化行政機構가設置되여 여기서民族文化의發展向上을促進해야한지니 이에 그基本方針과 方策을좇어 아래와같이提案하는바이다

一、政府組織內에 民族文化復興을爲한 獨立行政機關인 文化部(假稱)를 設置하고 左의六局을 同部內에置함

1、總務局=(六課)庶務、經理、調査、連絡、褒賞、人事

2、文藝局=(四課)文學、美術、工藝、建築

3、演藝局=(四課)音樂、演劇、舞踊、劇場

4、生活文化局(三課)儀禮、風雅、家政

5、映畵局=(四課)製作、技術、檢閱、宣傳

6、圖書局=(四課)出版、審査、統計、司書

二、國民文化振興 推獎을爲하야左의 四個機關을設置함 이常設機關은 文化界各部門의 權威者를 拔擢網羅하야 國民文化의暢達과世界文化의 寄與에貢獻함

1、國立科學院 第一部=人文科 第二部=自然科學

2、國立藝術院 第一部=美術 第二部=文學 第三部=演劇 映畵 音樂 舞踊

3、國立劇場 第一部=運營 第二部=養成 第三部=研究

4、國立映畵製作所 第一部=製作 第二部=普及 第三部=養成 第三部=研究

白氏作品鑑賞會

美公報院美術課에서 白榮洙氏作品鑑賞會를 八日부터 十五日까지 美國文化研究所二層에서開催한다

三三遺族會延期

지난 일요일 모일예정이던 三十三인유족회는 우천으로 중지되고 오는十一일 창경원비원에서 개최하기로되었다

美軍人의行悖
城東署員을亂打拉致
單刀에찔려警備隊員도重傷

지난六일밤十一시경 미군三명이 서울시성동역앞을통행중인 주민二명에게 시비를걸어 란타한다는 급보를받은 성동서에서는 경관五명이출동하야 주민을구출하였는데 전기미군들은 그길로성동서로와서 닥치는대로 경관을 란타하며 투석(投石)한끝에순경一명을납치하였다 그때마침통행중이든 국방경비대제一연대소속이경관(李暴觀)(二八)경비대원의一명이 경관에가담할기세를보이자 미군은이(李)경비대원을 단도로찔으고 납치중인 경관도내버리고 도주하였다한다 흉부에기리여덟치 깊이두치의치명상을입은 이경비대원은즉시 시내지민병원에서응급치료를받은후미군이미군병원으로옴기여갔었는데 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이사건중시종일관무기를쓰지않고사태를수습할려한 경찰의태도는 심중한바있었거니와생명까지 절명시되는 경비대원에대한 경비대측의금후의태도는주목된다

鐵道倉庫巡廻員을 美軍이射殺

지난六일 하오十시廿분경 창고경비차 순회중에있든 운수부후생과 예매계서기 강승원(姜承远)(二五)등四명은 돌연미인이부름으로『우리는경비원이다』라고대답하고 창고전면으로올때 미인두명이 권총을발사하야『강승원』은흉부에관통상을 입고 현장에서절명하였다고한다 그런데강씨의장례식은지난八일 하오一시에거행하였다한다

지난六일밤十시경 성동서형사대는 서울시신당동(新堂洞)一三九번지의二(二二)호 김경선(金景善)(二一)의 집을 포위하고 제조된수류탄 五十여개를몰수하는한편 연루자十여명을체포하고 방금배후관계등을문초중이라한다

敦岩寫眞館서 18歲處女逢變

처녀는 사진찰영도위험 서울돈암동(敦岩洞)에있는 돈암사진관주인 이종수(李鍾洙)는성북동(城北洞)에 거주하는 유순자(劉順子)(一八)(假名)라는 여자가 사진을 백히고 六월十三일 오후八시경 사진을 차즈러오자같은동내 동도극장(東都劇場)오해환(吳海煥)과 공모하야 二층암실로 유인한후 암실문을잠구고 오해진이가 능욕을 뵈이라한결과 전기 유순자는 고만혼김에 창으로뛰여나려 전치약七주간의 부상을 입었음으로 소관성북서에서는 八일전기두명을 검거하야 엄중취조중이라한다

夏期大學開設
各道別로教員再訓練

문교부에서는 오는八월二일부터 중등학교교사의 재교육을목적으로〃하기대학〃을 개설하게되였는데 참가자격은문교부 임시중등교원양성소및 각대학중등학교부속중등교원 양성소졸업자와 현직중에있는 중등교사이라한다 그리고 각도별 하기대학개설일정은 다음과같다

場所	期間	道別
國立서울大學 師範大學	八月二日—十四日	서울 京畿 江原
釜山水產大學	八月十六日—二十八日	慶尙南北
全州師範學校	八月二日—十四日	全南北 濟州道
大田工業學校	八月十六日—二十八日	忠淸南北道

仁川女子警察署長 玄珠福起訴猶豫

앞서 공금횡령고디대금등의혐의로 수사국으로부터송청된인천(仁川)여자경찰서 현주복(玄珠福)과 서장은 그간 김여재(金寧在)검사의취조를 받고있던바수일전 기소유예로되였다한다

同胞死傷80餘名
福井縣의震災後報

앞서발생한 일본후구이켕(福井縣)일대의 진재로 다수한사상자를냄에따라 동포의안부가 걱정되든중八일과도정부에보고된바에 의하면 廿명의동포사망자를 비롯하야 중상이약六十명가량이나된다고한다 이밖에 가옥파괴가약三백채나되고 가옥소실이八동반이상파괴된집이 七十동이다 그러고 이지대에는 약천호에五천五백여명의 동포가살고있다한다

手榴彈製造犯 十餘名을逮捕

수류탄을제조한 일당이 체포되였다

南朝鮮林業界 現況과其對策 (中)
朴一煥

各道別의 木材統制令이 再昨年初夏에 發布되어相當한時日을 經過하였지마는 그는結局無原則한法令일뿐이니라 現實에全然符合되지않는同令이 業界를指導할수없었고 따라서効果를거둘수없었다。令自令業自業의實情으로 오직沈滯로써 一貫하였거니와朝鮮木材統制의 最高實踐機關인 朝鮮木材株式會社는 매공문이로 木材統制에出發하야 한동안買收하는바없이 自由流通을 抑制禁止한것은 實로 林業界에對한 一大冒瀆이었다。以後에 一億二千萬圓의 融資가있었으나 尤大한 業界를 統制함에는 不足한바커서 蛋足之血에 不過한것이었다。統制自體가不必要한 企圖이어서 好事者들의 閑事에 不外하였지마는 그의貧弱은 오직木材業界의 運營을阻害한것뿐이다。統制令自體가空文化하였고 道木材會社가 總出하였으나 全體의統制가 何等의根據上에 서지못하는以上 部分的統制가可能할바못된것이다 亦是好事者의 消遣資料이면서業界發展을 阻止하는存在가되고만것이다。

이와같은 모든政策及政策運用의 矛盾과混亂誘致는 木材界全體를 沈滯케한것이다。 더욱이 南北朝鮮이分割되어 業界의有機性을잃은데다가南北朝鮮의諸客觀的情勢는 頻繁히變動되어 前途의正確한展望이 全然不可能하였고 또한適當한計劃과 方策을세울수없었다。 여기에다가軍政官吏의 專擅的意圖도强力히 發動하야 民間人의無對策이야말로 朝鮮木材界人物의 너무나 不足함을 一般人으로하야금 恨歎케하는바이다。

三、林政樹立에對한私見

어느時代 어느經濟制度下임을莫論하고 山林에對한國家的計劃은絶對로 必要하니만치 山林에對한國家의干涉도반듯이 附隨하고 딸아서極히强力해야할것도事實이다 國土全體의料理問題일뿐아니라 產業資源의 根本에關係된것인까닭일것이다。 그럼으로朝鮮의山林對策에옳은 原則이樹立되고 國家로서의强力한營作이있어야할것이다 地方分權的이고도 無軌道不規則한 行政을各道各邑으로推進시킬수없는것이다 이러한見地에서還間의 山林行政機構의改革案이 생긴것은 매우安當한措置라할것이다。

國家百年大計의 重大事業에屬하느니만치 確乎安當한 山林政策이樹立됨을期待하는바이나 現下朝鮮은 南北分割의 儼然한事實下에있으니 南朝鮮過渡의山林政策은 그에適應한本質을가저야할것은 勿論이다 北朝鮮에比하야 南朝鮮의林相은 貧弱하기짝이없는데다가 南朝鮮人口의密度가 높아서 需要量은 如于過多한것이아니다 養林의 原則樹立及 其對策遂行上에있어 至極히困難한立場에 있음은 一般의 痛感하는바이나 今日과같은 過般期의 危險한環境은 須臾의躊躇를不許한다 비록冒險性을띤政策을才致로써 實施하느니보다는 堅實한少伐採主義의原則及施策의 樹立이絶對로必要함을強調한다 이러한原則에 依하야 外材輸入의供給策과 合理的燃料對策의樹立을期待하며 外材輸入에對한 財政上의不均衡을誘致함이 關心되지않는바아니나 그러나그弊端은全國土의 걷잡을수없는 荒廢化에比하야 차라리挽回의길이있을것을 믿는까닭이다 特히 南朝鮮의過多한 剩餘勞動力의活用을 木材加工業에서 求함수도있어 對中輸出을奬勵함도 輕視할수없는한가지 對策일것이다。

이와같은 原則及對策의樹立이可能하다면 民有林의伐採量이 減退될것이오 따라서 統制對象面을 훨신縮少할수 있을것임으로 民有林의 林産物에 限하야는 自由의流通과 處分을容認함이 自然스러운措置일것이오 外材와官營材만은 國家權限下에두는것도 좋을것이니 이가大局的으로보는 林政把握의基本的見解가 아닐가생각한다 特히 政策의實踐에있어 行政機構의 一元化가絶對的인 前提條件이되여야할것인同時에 民間團體의整理, 對行政當局과의緊密한提携가 必然的으로附隨되는條件일것이다(계속)

布哇遠征의鄭君 凱旋拳鬪戰開催

昨年九月布哇에 遠征하였든우리拳鬪界의至寶鄭福壽君은四戰四勝의 빛나는戰績을 남기고지난五月九日歸國하였거니와 凱旋第一戰(十回戰)으로 宋芳憲君과 오는十一日(日)下午二時부터 徽文中學特設『링』에서 一大激戰이 벌어지게되였다

그리고이날의 賛助試合의對陣은다음과같다 ▽徐在石對金桂潤 ▽高峰兒對 申鉉基(各八回戰)

職業拳鬪再延期

雨天으로因하여 七日도 延期하였든 高麗프로部試合은 繼續되는雨天으로因하여不得已 오는十四日下午四時로再延期하였다

記者野球團組織

八日下午四時부터 朝鮮日刊新聞及通信社記者로써 野球同好人이모여 記者野球團을組織하였는데 그陣容은다음과같다

▲顧問=金東成(野協會長) 李哲源(公報部長) 金炯敏(서울市長)李晶燮(放送協會長)各新聞社社長 ▲團長李貞淳(自由)▲監督金東梭(서울타임스)▲主務蔡棄(京鄕) 梢源衡(朝中)琴철(自由)▲主將李容一(서울)▲選手崔成麟(朝鮮)外十二名

新刊紹介

◇檀國大學政治經濟講座第一分冊 서울市貫勳洞一四二 檀國大學附屬校外大學發行 非賣品

◇고처쓴조선역사 김성칠지음 서울市忠正路一街七五 朝鮮金融組合聯合會發行 定價二五〇圓

本學院特色

▼朝鮮의新聞記者、言論人을뜻하는青年學徒를爲하여專門的인理論과實習을兼하야教授하는新聞學研究의最高學府：：本科의目標

▼政治外交報道宣傳方面 또는라디오雜誌出版文化事業에뜻을두는青年學徒를爲하여 다른大學의課程에缺한學科를短時日에教授하는우리나라의唯一한施設：：：專修科의目標

①本科(二年制)第一學年(夜間)五十名・第二學年(晝間)補缺若干名
②專修科(一年制)(夜間)五十名
▼試驗期日 七月十八日부터七月二十四日까지

朝鮮新聞學院

●男女學生募集●

募集要項

●志願資格●

▲本科第一學年①法文系新制大學第二學年修了者 ②法文系舊制大學第一學年修了者③法文系專門學校本科卒業者④以上同等學力의資格이있다고認定되는者

▲本科第二學年(編入試驗)①法文系新制大學第三學年修了者②法文系舊制大學第二學年修了者

▲專修科①大學卒業者②專門學校本科卒業者③大學又는專門學校高學年在學者 또詮衡한後에應試資格을許與함

▲聽講生 本科、專修科志願資格을具備치못한者 所定試驗에合格된者에限해서各科의聽講을許諾함

願書마감 7.17日

●願書提出場所● 서울市中區乙支路二街電車停留場北便 朝鮮新聞學院教務處